

Destination & Differentiation

MAGAZINE

Spring I 2020













이계성 드림파크CC 지배인

국내 유일의 통합관리 전문 운영사인 O&M(Operating & Management) 플랫폼 기업인 주식회사 이도(YIDO, 대표이사 최정훈)가 운영 중인 퍼블릭 골프 클럽 브랜드 클럽디(CLUBD)가 친환경 골프장인 드림파크 컨트리클럽(이하 드림파크CC) 운영을 시작했다. 클럽디는 지난 2월부터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골프장인 총 36홀 규모 드림파크CC를 위탁 운영한다고 밝혔다. 클럽디는 예약, 경기 진행, 캐디 운영, 클럽하우스를 포함하는 시설물 관리 등 골프장 운영 및 시설 관리의 전반을 책임지게 된다. 이번 드림파크CC 운영으로 클럽디는 총 108홀의 규모의 골프장을 운영 관리하게 됐다. 현재 클럽디는 충북지역에서 클럽디 보은(18홀)과 클럽디 속리산(18홀), 전북지역에서 클럽디 금강(36홀) 등 3곳의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드림파크CC는 2013년 10월에 개장했고,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을 비롯해 KPGA 티업 지스윙 메가 오픈 골프대회, US여자오픈골프 예선전 등을 개최했다. 골퍼들로부터 수도권 최고의 인기 있는 친환경 대중골프장으로 알려져 있다. 골프전문지 레저신문 주관으로 2005년부터 2년마다 전국 골프장약 500여 곳을 대상으로 평가해 선정하고 있는 '친환경 베스트 골프장 TOP10'에 2015년과 2017년, 2019년 등 3회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최정훈 (주)이도 대표이사는 "당사는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비전으로 친환경, 신재생, 골프장 사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소유와 운영 분리 원칙 아래 차별화된 골프장 운영 관리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계성 드림파크CC 지배인은 "고객에게 신뢰 받는 운영, 투명한 운영 시스템, 안정적인 조직관리를 통해 골프장 통합관리 전문 운영사의 차원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며 "항상 현장 중심 위주 업무 진행을 통해 직원과 소통하고, 고객 만족을 위해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 | CLUBD MAGAZINE

클럽디(CLUBD)-카카오 VX, 골프 신사업 전략적 제휴 GPS 활용한 골프 타석 분석 등 IT 기반 신규 서비스 제공

국내 유일의 통합관리 전문 운영사인 O&M(Operating & Management) 플랫폼 기업인 주식회사 이도(YIDO, 대표이사 최정훈)의 골프 클럽 브랜드 클럽디(ClubD)와 새로운 골프 문화를 만들고 있는 (주)카카오 VX(대표이사 문태식)가 협력에 나선다.

클럽디와 (주)카카오 VX는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중구 이도(YIDO) 본사 씨티스퀘어 빌딩에서 온•오프라인 플랫폼 활용을 통한 골프 사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클럽디는 골프장 통합관리운영 전문회사인 이도가 운영하는 퍼블릭 골프 클럽 브랜드다. 클럽디는 현재 충청북도에 있는 클럽디 보은과 속리산, 전북 클럽디 금강 등 총 3개의 골프장(72홀)을 위탁 운영하고 있고, 최근 수도권 매립지 골프장은 36홀 규모의 드림파크CC 운영에도 착수하는 등 전국적으로 사업장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클럽디는 카카오 VX에 클럽디가 운영하는 골프장 티타임 제공, 스크린 골프 코스 제작 및 프로모션 등을 지원하게 된다.

카카오 VX는 골프장 예약 및 홍보, 스크린골프 코스 제공 및 프로모션을 제공키로 했다. 특히 양사는 신규 골프장 확대, GPS를 활용한 골프 타석 분석 및 거리 측정, 통합 멤버십, 아카데미 사업 기회 창출 등 IT를 기반으로 한 골프 신규 서비스 개발을 위해 공동으로 나서기로 했다.

최정훈 (주)이도(YIDO) 대표이사는 "당사가 보유한 골프장 전문 위탁 경영 역량과 카카오 VX의 온라인 서비스 접목을 통해 기존 퍼블릭 골프장에서 볼 수 없었던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며 "다양한 골프 플랫폼을 보유한 카카오 VX와 새로운 골프 문화 창출을 위해 협력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태식 (주) 카카오 VX 대표이사는 "각자의 영역에서 최고 수준의 역량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양사가 협력을 약속한 만큼, 이용자들에게 더 편리하고 혁신적인 골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골프 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이도와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 | CLUBD MAGAZINE



클럽디(CLUBD)와 (주)카카오 VX의 골프 신사업 활성화 협약식 기념 촬영 모습

도전적이고 웅장함을 갖춘 클럽디 속리산 'WEST 8번'

티잉 그라운드에 올라서면 2개의 폰드가 보이는 웅장함을 느낄 수 있는 홀입니다. 드라이버샷이 페어웨이에 안착만 되면 좌측 카트길 방향으로 만개한 열정적인 빨강 찔레 장미를 감상하며 세컨드 온 도전이 가능한 멋진 홀입니다. 티샷은 화이트 기준 우측으로 공략해 240m 이내로 보내 세컨드 해저드 입구에 안착시키고 세컨드 샷은 그린 좌측 앞에 벙커가 있어 중간보다는 우측으로 공략해야 써드샷을 좋은 위치에서 할 수 있습니다. 어프로치 샷은 그린이 2단으로 조성되어 있어 중핀 기준 볼이 핀보다 앞쪽에 떨어져야 퍼터가 쉬워지는 홀입니다.

코스재원: PAR5홀 470m(화이트 티), 408m(레드 티) 코스기록: 알바트로스 91회 / 이글 1,081회 / 버디 2,731회 / 파 14,204회 / 보기 21,627회

글 | 남승미 CLUBD 속리산 경기 과장





시원한 내리막의 시그니처 홀 클럽디 보은 'EAST 8번'

클럽디 보은의 시그니처 홀로 시원하게 내려다보이는 그린과 주변 경관이 아름다운 홀입니다. 그린 앞 연못에 우뚝 솟아있는 두 개의 바위는 울릉도와 독도를 형상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토를 생각하면서 애국심이 용솟음치는 홀이기도 합니다.

내리막 아일랜드 형태의 홀로 그린 주변에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음으로 클럽 선택이 중요합니다. 샷이 짧거나 길면 온 그린이 어려워 만만히 볼 수 없고, 스코어가 신경 쓰이는 홀입니다. 버디 욕심을 부리기보다 마음을 내려놓고 두 개의 바위와 갈대숲 사이로 평화롭게 떠다니는 청둥오리를 감상하고 독도에 대한 애국심을 불태워 의지를 다져보시길 바랍니다.



코스재원: PAR3홀 172m(화이트 티), 120m(레드 티) 코스기록 : 홀인원 18회 / 버디 3,175 회 / 파 40,192회 보기 45.860회 / 더블보기 24,977회

글 | 허현숙 CLUBD 보은 경기 과장

금강이 한눈에 보이는 클럽디 금강 'EAST 2번'

전북과 충남의 도계를 이루면서 군산만으로 흘러드는 멋진 금강이 한눈에 보이는 홀입니다.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플레이할 수 있는 클럽디 금강의 대표적인 홀이기도 합니다. 티잉 그라운드에 코스를 바라보면 한눈에 보이는 매서운 벙커는 플레이어에게 위협감을 느낄 수 있게 하지만 벙커 우측으로 공략하면 넓은 페어웨이로 안착할 수 있습니다. 세컨드 샷은 그린 양쪽의 벙커를 피해서 안전하게 중앙을 공략하는 방법이 벙커에 빠지지 않고, 편안하게 투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린은 홀컵 포지션에 따라 세 개의 마운드를 잘 확인해야 세컨드 샷 공략 지점이 달라지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코스재원: PAR4홀 338m(화이트 티), 294m(레드 티) 코스기록: 이글 4회 / 버디 867회 / 파 12,351회 /

보기 23,161회 / 더블보기 16,054회

글 | 김미건 CLUBD 금강 경기 과장





글로벌 골프 산업 트렌드를 한눈에 Golf Industry Show(GIS) Orlando2020 참관기

글로벌 골프 산업의 현주소와 미래를 볼 수 있는 골프 산업 박람회인 'Golf Industry Show(이하 GIS) Orlando 2020'이 지난 1월 27~31일까지 5일간 미국 올랜도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세계최대 규모의 박람회인 'GIS 2020'에 올해 25개국, 1000여 개 사가 참가했고, 약 4만 명이 박람회를 참관했다고한다. 가히 지구적 행사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골프 산업 종사자들이 'GIS'를 찾는 이유는 다양한 강좌와 세미나등 교육 프로그램, 최신 장비, 각종 액세서리 및 자재 등 그야말로 전 세계 골프 산업의 트렌드를 한눈에 파악할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유명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소통의장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골프 산업 종사자들이라면 1년에 한 번 반드시 찾아야 하는 필수 현장 코스로생각하면 된다. 여러 차례 이 행사에 참가했지만 올해도 역시 닷새라는 주어진 시간 안에 골프 산업 트렌드를효율적으로 섭렵하기란 쉽지 않았고, 나름의 계획이 필요했다. 세미나와 교육 강좌, 골프 관련 최신 장비 전시,현장 견학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참관했고, 경험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골프 산업 관련 강좌와 세미나 중 리더십 교육과 코스 관리방법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미 1930년대부터 시작된 미국의 골프 산업은 그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이런 살아있는 경험들이 녹아든 사례 위주의 강좌와 세미나였는데, 현재 클럽디에서 운영중인 아카데미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과 실무들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IT를 활용한 효율적인 차세대 코스 관리 전시회도 좋은 경험이었다. 센서에 의한 토양 습도, 온도, 염도측정데이터 수집, 코스 경영관리 장비와 이미 상당한 진보 및 안정화 된 코스 장비의 자동화 및 무인화 발전 단계를 엿볼 수 있었다. 특히 GPS, AI 기반의 센서를 통한 잔디의 무인화 관리 가능성은 큰 관심을 끌었다. 무인화 코스관리 기술은 1970년대부터 개발돼 현재 5단계 테스트베드 진행 중인데, 향후 2년 내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즈니 월드에 위치한 월도프 아스토리아 골프장(Waldorf Astoria Golf Club), 디즈니 레이크 부에나비스타골프장(Disney's Lake Buena Vista Golf Club)과 디즈니 팜골프장(Disney's Palm Golf Course)의 코스 견학도소중한 경험이었다. 클럽하우스 내 불필요한 공간을 과감히 버리고 매출 발생 가능한 공간으로만 구성해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또한, 레이크 부에나 비스타골프장(Lake Buena Vista Golf Club)은모든 홀마다 역사적 기록, 내장한 셀럽의 샷 선택 및 결과, 미키마우스와 디즈니 캐릭터를 활용한 벙커 등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한 골프장이었다.

탑골프(TOP GOLF) 등 골프 유관 활성화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신사업 기회를 포착할 수 있었다. 도심거점별 체인점 운영, 트레이닝이나 레슨보다는 즐길 수 있는 게임 콘텐츠와 스토리텔링에 의한 공간 조성 등 많은 이용객을 모으고 있는 운영 전략은 많은 도움이 됐다. 또한, 부대 매출에 기여하고 있는 별도 메인바(Bar), 타석별 식음료(F&B) 등도 주목할 만한 시도였다. 개인적으로 이미 여러 차례 이런 필요에 대한 주장을 펼치고 있었지만, 실제 성공사례로 볼 수 있어, 그동안의 갈증을 해결하는 매우 만족스러운 시간이었다. 미국의 골프 산업은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경제 불황과 인건비 상승, 자동화 시설로의 변화, 제한적인 골프 인구 등으로 다양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왔고 이를 극복하며 성장해왔다. 이런 경험이 축적돼 만들어진 이번 'GIS 2020'은 효율화, 비용 절감, 핵심 인재육성, 골프장 인구 유입의 필요 등 현재 포화상태에 이르러 성장둔화가 심화하고 있는 대한민국 골프 시장에서 클럽디가 나아가야 할 해법을 일부 찾을 좋은 기회가 됐다.

이번 'GIS 2020'을 통해 심플한 고객 동선, 시스템화, 인력의 효율적 운영방안 등 현재 클럽디가 당면한 현안을 언제까지 미룰 수 없다는 것과 도전만이 더 나은 미래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하게 됐다. 마지막으로 이런 좋은 교육의 장에 더 많은 클럽디 직원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현준 클럽디(ClubD) 총괄 이사(왼쪽), Darren Redetzke 토로(TORO) 글로벌 사업 부사장(가운데), Brent Borelli 리버벤드 골프장 관리자(오른쪽)









INFLUENCER INTERVIEW

"특색있는 5G 중계로 캐스터 도전했죠!" 김미영 JTBC 골프 프리랜서 아나운서

"아버지께서 골프광이신데요. 아나운서 꿈을 이룬 딸을 보신다면 기뻐하실 것 같았어요"

골프 채널에서 여성 중계 캐스터는 손에 꼽을 정도다. 5시간 동안 방송을 이끌어가는 것이 체력적으로 힘들고, 골프 중계에 맞는 목소리, 골프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로 JTBC 골프에서 10년간 아나운서를 방송을 진행한 김미영 아나운서를 만나봤다.

Q.ClubD: 안녕하세요! 간략히 소개 좀 부탁합니다.

A.김미영 아나운서(이하 김 아나): 2004년 강릉 MBC에서 처음으로 아나운서를 시작했고요. 2012년부터 JTBC골프와 인연을 맺었고, 올해 9년째 골프 방송을 하고 있어요.

Q.ClubD: 아나운서에서 골프 캐스터로 영역 확대를 한 건가요?

A.김 아나: 네, 맞아요. MC와 앵커, 각종 행사 진행 등 아나운서로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요. 2016년 이세돌 프로와 알파고 5번째 대국 중계도 했습니다. JTBC골프에서 감사하게 작년부터 캐스터로 골프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Q.ClubD: 골프에 평소에 관심이 있었나요?

A.김 아나 :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죠. 방송을 통해 알게 됐죠. 지금은 제 삶의 대부분을 골프가 차지하고 있네요. (웃음)

Q.ClubD: 관심이 없었는데 골프 채널에서 방송하게 됐나요?

A.김 아나 : 우연이었죠. 29살인가 공중파 아나운서에 마지막 도전을 했는데 최종 면접에서 실패했어요. 방송을 이어갔지만, 의미가 없었어요. 교직을 이수해서 임용고시를 봐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문득 그때 골프 중계만 보시던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께서 즐겨보시는 골프 채널에서 아나운서 꿈을 이룬 딸을 만나면 더 기뻐하실 거 같았거든요. 아버지께선 첫 방송 프로그램부터 현재 프로그램까지 다 녹화해서 늘 모니터해 주시는 든든한 후원자이세요. 힘들 때가 많지만 아나운서를 준비하고, 방송하는 내내 응원해주신 부모님께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Q.ClubD: 재밌네요. 골프 중계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A.김 아나: 2012년에 입사하고, 아마추어 골프 중계, 이벤트 대회 중계 경험은 종종 주어졌었어요. 그러다 2018년에 SK텔레콤 오픈, 한국오픈, LPGA 하나은행KEB 챔피언십에서 시그니처홀 중계를 맡게 됐어요. 한홀만 지정해서 중계를 했는데요. 유명한 선수나 홀 위주의 기존 중계 방식과 다르게 그홀을 지나는 모든 선수의 스윙과 루틴을 보여줄 수있었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시청자가 채팅방에 대화를 통해 함께 참여할수있는 방식이라신선했어요. 제게는 아마추어가 아닌 진짜 프로선수들을중계할수 있는 것도 영광이었고, 녹화중계가 아닌 생중계를 현장에서함께한다는게 의미 있었어요.

Q.ClubD: 중계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방송이 있으신가요?

A.김 아나: 앞서 이야기했던 방송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 2019년에 '신인 챔피언십' 캐스터를 우연히 맡게 됐어요. KLPGA에 데뷔한 선수 12명의 매치플레이 대회였는데요. 이때 신인이었던 조아연, 임희정 선수가 2019 년에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요. 특별한 중계를 맡은 것이 감사했고요. 기존 골프 MC 영역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한 저 자신을 발견한 것도 좋았어요.

Q.ClubD: 골프는 잘 치시나요?

A.김 아나: 배우기 시작한 지 7년 넘었는데요. 본격적으로 라운딩을 한기간은 4년 정도에요. 평균 90대는 나오는 편인데요. 처음 100타를 돌파한곳은 서원힐스에요.



그날 정말 잘 맞아서 오전, 오후 36홀 라운딩을 했어요. 제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 36홀 라운딩이에요. (웃음)

 ${f Q.ClubD}$: 클럽디에 대한 느낌은 어떠셨나요?

A.김 아나: 클럽디는 작년 속리산 그랜드 오프닝을 통해 알았어요. 굉장히 젊고, 기존 퍼블릭 골프장과는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행사 당시 초청 라운드도 유명 프로 골퍼 위주로 초청해서 이뤄지지 않고, 골프 업계에 계신 다양한 분들이 참석해, 소통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이 무엇보다 좋았어요. 이 외에도 드레스 코드 선정이나 소원을 담은 풍선 등 과하지 않으면서 잔잔하면서 기억에 남는 이벤트들이 클럽디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좋은 추억을 주셔서 저도 감사해요.

Q.ClubD: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은 어떤가요?

A.김 아나 : 방송을 통해 많은 분과 소통할 계획이고요. 골프장에서 화법이나 기업 강의 등 제 경험을 살려서 많은 분과 만날 계획입니다.

글 | CLUBD MAGAZINE

CULTURE STORY

전라북도 대표 퍼블릭 골프장 'CLUBD 금강' 레스토랑

클럽디 금강의 클럽하우스는 국보 제224호인 경회루를 연상하게 하는 전통적인 느낌과 고급스러운 골프장의 세련됨을 갖췄다. 클럽하우스 2층에 있는 레스토랑에 앉아있으면 넓게 펼쳐진 골프장의 전경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또한, 외부 테라스에선 호남의 젖줄인 금강과 옛 보부상들이 오갔던 함라산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데, 자연을 만끽할 수 있어 골프의 즐거움을 더욱 느낄 수 있다. 전북을 대표하는 퍼블릭 골프장인 클럽디 금강의음식은 '최경원 셰프'가 담당하고 있다.

최경원 셰프는 골프장 레스토랑 운영 및 요리 경력만 18년의 베테랑이다. 골프장 레스토랑 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해봤기 때문에 고객들의 요구를 무엇보다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이 그의 차별화 된 점이다. 실제 최 셰프는 삼성 웰스토리 자체 요리경진대회에서 우승을 2회나 차지했다. 나주 골프레이크, 울산 보라CC, 송도 오렌지 듄스, 부산 스톤 게이트 등 유명 골프장에서 고객 입맛을 책임졌다.

골프 시즌을 맞아 즐거운 라운딩과 건강을 생각해 최 셰프가 선보인 메뉴는 '주꾸미 연포탕'이다. 고객들을 위한 건강식을 고민하다 이는 충남 서천이 주꾸미로 유명하고, 봄철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음식이라는 점에서 선보이게 됐다. 봄에 제철인 주꾸미와 봄 미나리, 각종 야채를 곁들여 고객들이 활기찬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선보인 메뉴다 '해물파전과 오징어초무침'도 그가 추천하는 메뉴이다. 최 셰프가 클럽디 금강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이후 보은, 속리산 등에서도 도입한 메뉴로 고객들에게 인기다. 고소한 맛이 나는 차돌박이와 제철을 맞아 더 맛있는 봄동을 넣어 깊은 맛과 감칠맛을 더한 '봄동 차돌박이 된장찌개', 맑고 개운한 육수에 양지를 넣은 깔끔한 맛을 내는 '맑은 양지 해장국'도 고객들의 건강을 생각해 선보인 메뉴다.

봄 주꾸미 연포탕

주꾸미는 DHA 등의 불포화 지방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효과가 있으며, 피로 해소에 좋은 타우린이 다량 함유된 건강식품이다. 인근 서천 특화시장에서 공수한 주꾸미를 사용하여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각종 채소와 함께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클럽디 금강의 대표 메뉴이다.

해물파전&오징어초무침

신선한 해산물과 쪽파를 넣어 겉면을 바싹하게 익혀낸 해물파전에 새콤달콤한 오징어 초무침을 곁들여 먹는 환상적인 조합의 메뉴이다. 라운딩 후 간단한 음주와 함께 안주로 제격이다.

글 | CLUBD MAGAZINE

클럽디 금강: 전라북도 익산시 웅포면 강변로 130 연락처: 063-720-7777 CLUBD 통합 홈페이지: www.clubd.co.kr





최경원 세프

봄을 느끼는 따뜻한 카페 '봄날 35'

봄날을 생각하면 포근하고 따스한 햇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흔한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는 이런 느낌을 만끽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SNS에 올릴 수 있는 세련됨과 계절적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카페들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라북도 익산시에 위치한 '봄날 35'는 예쁜 감성을 기본으로 겨울에 와도 봄이라 느껴질 만큼 따뜻한 햇볕과 함께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봄날 35'는 카페 내부 천장이 통유리로 되어있어 햇빛이 카페 내부로 그대로 들어온다. 이름의 35는 번지수의 35를 따서 기억하기 쉽게 지은 것이다. 이층으로 올라가면 루프톱과 5인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도 갖춰져 있다. 가격은 다른 카페에 비해서 저렴하고 음료를 시키면 직접 구운 머랭 쿠키를 서비스로 준다. 가족, 연인, 친구들과 사진 찍고 추억을 만들기 위한 장소로는 충분하다는 느낌이다. 클럽디 금강에서 30분 거리로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한번 방문해도 좋을 듯 하다.



주소: 전북 익산시 동서로 37길 35(영등동 291-12번지) 1,2층 Tel: 063-834-3143





글 | CLUBD 금강 신입 캐디

일상에서 벗어난 휴식 'Slow Retreat' 서천 문헌 전통 호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나만을 위한 여유로운 시간을 통해 힐링을 얻는 체류형 관광 상품인 '슬로우 리트릿(Slow Retreat)'은 최근 주목받는 프로그램이다.

한국관광공사와 서천군에서 문헌서원과 전통 호텔 등 문화재와 자연을 접목시킨 상품인데, 20~30 젊은 층에게도 인기가 많은 곳이다. 문헌서원은 1574년 조선 시대 선조 7년에 지방 유림의 공론으로 고려의 충신인 '이곡'과 '이색'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서원이다. 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에서 주연배우 박보검과 김유정의 데이트 촬영장소이기도 하다. 문헌서원 입구에는 전통 호텔과 한정식을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도 함께 있어서 가족과 함께 여행을 즐기기도 좋은 장소이다. 무엇보다 호텔 내부에는 몸과 마음을 힐링하라는 의미로 TV가 없다는 점은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숙박비는 주중 10~12만 원(4인 기준), 주말 12~15만 원(4인 기준) 수준이며, 조식도 1만 원에 즐길 수 있다. 입실은 당일 14:00~18:00, 퇴실은 다음 날 12시이며, 식사 주문은 사전 예약만 가능하다.

전라북도 대표 골프장인 클럽디 금강에서 차로 약 35분 거리로 가까워 골프 라운딩 후 색다른 휴식을 원하는 골퍼라면 한번 가볼 만 할 듯 하다. 글 | CLUBD MAGAZINE

주소 : 충남 서천군 기산면 서원로 172번길 39 Tel : 041-953-5896

FINANCE STORY

바이오(BIO) 투자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할 때



국내외 금융시장은 1월 하순 이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산 우려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로 글로벌 투자심리가 위축돼 코스피는 1,400선까지 내려갔고, 미국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1,200원대로 상승했다.

소수의 대형주를 제외하고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담기는 수년간 주춤해오다 작년 말부터 조금씩 매수세가 살아나는 모습이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상 최대 매도를 기록하며 크게 흔들렸다. 가뜩이나 작년 하반기부터 일부 섹터를 중심으로 한 자금 쏠림으로 상장주식이 투자자를 두고 밀고 당기듯이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더욱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번 코로나 사태처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평소 어떻게 위험 관리를 했는지에 따라 향후 투자의 성패는 갈린다. 다시 말해 불안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에 대해 평소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수익률이 낮은 원금 보장형 상품에 투자하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가능한 많은 방법을 알아보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더 구체적으로는 자산의 전부를 1~2년 정도의 호흡으로 이익을 거두는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다소 단기적인 투자는 일부 투자자를 제외하고는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많이 알아보고 긴 호흡으로 진행하는 투자는 잘되지 않더라도 기다릴 수 있게 되고, 후회가 적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본업과 동시에 투자에 관한 공부를 겸하기가 쉽지 않기에 위험 관리와 제대로 된 투자를 위해선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하고자 한다. 물론, 전문가에게 맡겨도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간혹 묻지 마 주식투자를 하다가운 좋게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주식을 쉽게 생각하여 오히려 독이 돼 투자를 맡기고자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문가를 통한 바이오투자를 한번 권해보고 싶다.

#바이오 투자에 대한 재고

한국 바이오 업종은 바이오시밀러 대형주 랠리로 형성된 2018년 최고점 대비 약 2년의 기간 조정과 50% 이상의 가격 조정이 발생한 상황이다. 작년 임상 3상에 실패를 발표한 바이오 업체 4개사의 이슈 외에도 부정적 이슈가 있었던 2개의 이슈가 조정에 한몫했다. 쿼드자산운용 바이오 연구에 따르면 미국 바이오 종목들의 변동성 배경은 임상데이터 발표와 같은 펀더멘털 요인이지만, 한국 바이오 업종 변동성의 주된 이유는 펀더멘털 요인이 아닌 투자심리와 같은 매크로 이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위기 속에 기회가 있듯이 조정을 받은 지금이 바이오 투자의 적기로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순히 주가 하락률이 낮다고 해서 권하는 것은 아니며, 이번 위기를 통해 바이오 업계 생태계를 도울 수 있는 투자를 고민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우선 바이오 투자 시 그 분야의 우수한 핵심인력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다. 다시 말해 일반인이 바이오 분야를 투자할 때 방법은 검증된 바이오 심사역의 도움을 통하면 좋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닌 핵심인력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투자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전문 바이오 심사역이 있는 GP를 통해 투자한다면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투자 방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투자 구조다. 최근 2년간 당 센터에서는 바이오 주식투자를 할 때 전환우선주(CPS)로 투자를 많이 해왔고, 이에 따라 투자한 종목 중 50% 이상 하락한 종목이 있더라도 원금 수준으로 가격 하락을 방어할 수 있었다.

이런 위험 헷징이 가능한 이유는 전환우선주로 투자하면 가격 재조정(Refixing)이 가능해져 기준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이유다. 하지만 국내 바이오 투자는 소위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투자를 할 때 소위 대박을 노리고 단순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방식은 큰 변동성을 이겨내기도 어려울뿐더러 진정한 바이오 투자에 대한 의미가 퇴색된다. 또한, 큰 변동성과 리스크로 인해 바이오 투자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투자방식을 자본차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데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충분히 입증됐다.

따라서 소위 단타가 아닌 기업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산업 생태계의 발전을 돕는 투자 본연의 역할에 대한 깊은 고민을 이번 기회에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태어나서 병원을 한 번도 안가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듯 우리 모두 의료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 의학발전은 곧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에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속성과 바이오 업종에 자금이 몰리는 분위기를 이용해 진짜가 아닌 이름만 바이오인 회사들이 생겨날 수도 있겠지만, 위에 언급한 방식대로 선별하면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아주 일부라도 기꺼이 투자할 수 있는 조금 더 성숙한 마인드로 접근하여 게다가 자본차익을 거둔다면 투자에 대한 의미도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대중의 알 권리와 전문지식이 없는 대중이 오해하거나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과학자의 두려움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암치료의 혁신, 면역항암제가 온다 中-

YIDO STORY

이도(YIDO) 친환경 폐기물 사업, KBS·YTN 등 주요 매체서 조명





국내 유일의 통합관리 전문 운영사인 O&M(Operating & Management) 플랫폼 기업인 주식회사 이도(YIDO, 대표이사 최정훈)의 폐기물, 폐수 등 친환경 사업장이 주요 방송사를 통해서 조명을 받았다. 폐기물 처리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민간 기업으로서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친환경 사업장을 운영하는 이도의 시설이 관심을 받은 것이다. 국내 대표 공중파인 KBS는 지난 3월 27일 시사 프로그램인 1TV '다큐 세상'을 통해 당사의 친환경 폐기물 사업장인 인천 수도권 환경 자원 순환시설을 조명했다. 이도는 민간기업으로서 이례적으로 자기자본 투자를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자동화 사업장을 마련했다. 또한, 의성 방치폐기물과 같이 처리하기 어려운 건설혼합폐기물 자동화 시설을 구축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전문 보도 채널인 YTN도 지난 2월 자회사 채널인 YTN 사이언스의 방송 프로그램인 '황금나침반 기술자들'을 통해 이도의 인천 수도권 환경 자원 순환사업장, 일성 폐수처리장, 청라 감량화 시설 등 주요 사업장에 대해 방송하기도 했다. 이도는 수처리 회사인 인천 일성의 지분 인수를 통한 투자와 함께 기존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여 현대화 공사를 진행했다.

특히 폐수처리 자동화 시스템을 통한 수처리 시 약품 사용 비용이 약 50% 감소해 슬러지 등 2차 오염물질 발생량도 크게 줄이고 있다.

지난 2014년 최정훈 대표이사가 설립한 이도(YIDO)는 인천 수도권 환경 건설폐기물 사업장 운영, 일성 수처리 사업장 운영, 국가적 관심사인 경북 의성군 방치 폐기물 처리 참여, 전주 폐기물 소각장 책임 운영, 정읍시 100MW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 건립 사업 및 충남 당진시 100MW 태양광 발전소 개발 사업 등 친환경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도는 현재 친환경(폐기물· 수처리·신재생) 분야는 물론 골프장, 인프라(고속도로·터널·교량·철도), 부동산(오피스·리테일·기숙사) 등 다양한 분야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O&M 플랫폼 기업이다. 글 | CLUBD MAGAZINE

이도(YIDO), 대우건설·RBC 출신 부문대표 선임

'Value-Add 전략' 투자 전문성 확대 ··· "국내 유일 자산 가치 극대화 전문 O&M사 입지 강화" 자기자본 투자로 친환경 폐기물 처리 규모 2배 시설 구축 · 초대형 오피스 빌딩 관리 후 공실률 '제로' 성과

주식회사 이도(YIDO·대표이사 최정훈)는 국내 대기업 및 글로벌 투자은행(IB) 출신의 부문 대표를 새롭게 선임하고 환경 인프라, 부동산사업 부문의 'Value-Add(가치 부가) 전략' 투자 및 통합운영관리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고 지난3월 밝혔다. 이도는 신임 환경 인프라 부문대표에 대우건설 출신의 주효준 부사장(사진 오른쪽 위), 부동산 부문대표에 캐나다 왕립은행(RBC)과 삼성증권 출신 안준상 부사장(사진 오른쪽 아래)을 각각 선임했다. 주 신임 부사장은 대우건설 토목설계 및 기술팀을 시작으로 한화건설 민자 및 환경 담당 임원, 대우건설 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임원을 역임하며 관련 사업을 이끌었다. 실제 주 부사장은 47MW 제주 감귤농장 태양광(800억 원), 80MW 경북 영양 육상 풍력(1,500억 원) 사업, 화성 및 양주, 제주 등 총 4,000억 원, 400km의 민자 하수도 건설 사업을 수행했다. 이와 함께 1조3,000억 원 규모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42km)를 비롯해 봉담~송산 고속도로(8,000억 원, 16km), 제3경인고속도로(4,500억 원, 14km) 사업을 주도한 환경 및 인프라 분야 전문가다.

부동산 사업 부문 대표를 맡은 안 부사장은 삼성생명 전략투자팀,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 홍콩 및 싱가포르 이사, 캐나다 왕립은행(RBC)과 웰스파고(Wells Fargo)은행 홍콩 부동산자산 자본시장(Capital Market) 담당 상무를 거쳐 삼성증권 IB 대체투자 본부장을 역임한 국내외 상업용 부동산 실물 투자 전문가이다.

이도는 이번 신임 부문 대표 선임을 계기로 폐기물 중간처리 및 재활용, 소각장, 매립장까지 이어지는 풀 밸류체인을 구성해 환경 전문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연료전지 및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분야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존 인프라 통합운영관리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주간사로 민자 제안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도 갖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대체투자 자산(Value-Add assets) 발굴 및 투자, 사업 분석 및 제안, 장기 운영 등 통합운영관리 역량을 공공 분야까지 확대하고, 기존 PM(자산관리), FM(시설관리), LM(임대차 컨설팅) 등 부동산 자산 운영관리 전문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정훈 대표이사는 "당사는 'Value-Add 전략' 투자의 전문성을 갖춘 국내 유일의 통합운영관리(O&M)회사"라며 "내부 인력을 통한 금융 설계, 운영 관리부터 매각까지 아우르는 사업성 분석 등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데 특화된 회사로서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자체 설비투자로 친환경 건설 폐기물 시설 구축 및 처리 규모 2배 확대, 초대형 오피스인 광화문 씨티스퀘어 공실률을 100%에서 '제로'로 6 개월 만에 낮췄다"며 "이와 함께 건설이 중지된 골프장에 대한 투자 및 운영관리를 통해 정상화를 이뤄냈듯 향후 고객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다양한 성과를 지속해서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 | CLUBD MAGAZINE





이도(YIDO), 밸류애드 전략 다각화 효과... IPO '청신호'- 더벨(the Bell)

밸류애드(Value-Add) 전략 투자의 잇단 성공으로 자산 가치를 높이는 전문 통합운영관리(O&M)사로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주식회사 이도(YIDO)의 기업가치가 최소 3,000억 원 이상은 된다는 평가가 나왔다. 상반기 실적을 연환산해 매출 2,000억 원을 넘어서면 몸값은 더 높아질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유명 경제 전문 매체인 더벨은 지난 3월 12일 이도가 IPO 추진 시 외형이 빠르게 성장하는 특성상 몸값을 높이기 위해 주가 수익 비율(PER) 방식보다 에비타(EBITDA, 세금·감가상각비·이자 지급 전 이익) 방식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내부지표를 고려한 지난해 이도의 에비타는 250~260 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시장기대대로 해외 선진국 피어그룹(베올리아 인바이론먼트, 수에즈 인바이론먼트 등)의 평균 멀티플(EV/EBITDA)인 12~13배 안팎을 적용하면 기업가치(Enterprise Value: EV)는 3,000억~3,400억 원까지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한, 올해 매출이 2,000억 원을 돌파한다고 가정해 에비타를 300억 원대까지 추정해볼 수 있고, 순차입금을 고려해도 적정 시가총액은 3,000억 원대 이상으로 제시될 여지가 있는 셈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글 | CLUBD MAGAZINE





CLUBD 우수캐디 차정미 ClubD보은(경력19년) ClubD속리산(경력7년) ClubD금강(경력13년)







클럽디 보은

T 043-540-8888 **E** algml5968@yido.com **F** 043-540-8889

클럽디 속리산

T 043-540-8000 E golfsjy@yido.com

클럽디 금강

T 063-720-7700 **E** altnr1219@yido.com **F** 063-720-7799

드림파크CC

T 032-560-1700 **E** alstjr916@yido.com **F** 032-560-1789











F 043-544-9600

